

1억원 벌려고 이런 전시까지 하나

광주시립미술관 7월부터 무려 4개월간 '루벤스展' 대관 대표작 없고 조수 작품 대부분...비엔날레 노린 상술시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이 상업성이 강한 외부 기획사의 블록버스터전인 '루벤스 명화전'에 4개월간 전시장을 대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미술인들 사이에 공익성을 망각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루벤스 명화전의 경우 그의 회화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 보다는 그의 제자나 조수들의 작품이 대부분 이어서 '알맹이 없는' 전시 미술관의 안방을 내준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9일 "광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장 루벤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와 플랑드르

작가'(가제)전을 오는 7월20일~11월15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특히 시립미술관은 "이번 루벤스 명화전은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기간과도 겹쳐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을 전시장으로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사 측은 소요예산 20억원을 부담하고, 시립미술관은 4개월간 전시장을 내주는 대가로 8천만~1억여원을 받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미술계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관이 성수기나 다름없는 7월부터 11월까지 외부기획사에 전시장을 내준 것은 지역작가 육성을 위한 본래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 다들 안타깝다며 미술관측의 안일

함을 꼬집었다.

게다가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들 상당수가 루벤스의 대표작들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어서 자칫 내용이 없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70여점 중 루벤스의 작품은 불과 16점뿐이다. '죽고코인의 할례'(The Circumcision of Christ·1605) '오레이튀이아를 데려가는 북풍의 신(Boreas Abducting Oreithyia·1615) 등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와함께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전시회를 유치한다고 밝힌 시립미술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경기대 교수)씨는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되짚는 비엔날레 기간에 중세 미술을 보여주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해 보이며, 고작 16점으로 전시를 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미술계 인사는 "루벤스는 제자와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 공장 형태로 2천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계를 살리고 공익을 위한 전시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립미술관이 루벤스의 대표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블록버스터전을 준비하고 있어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 시립미술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

루벤스 대표작으로 불리는 '삼미신'(원제 The Three Graces·1640년·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소장) '레우키포스 딸의 약탈'(The Rape of the Daughters of Leucippus·1618·독일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노인과 딸'(Cimon and Pero·1630·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삼손과 데릴라'(Samson and Delilah·1609·영국 내셔널 갤러리) 등은 모두 빠져 있다.

이처럼 루벤스의 대표작들이 포함되지 않는 데에는 기획사가 주제에 맞게 작품을 선별, 기획한 게 아니라 현재 보수공사중인 오스트리아 비엔

나 미술대학 회화갤러리로부터 작품을 8개월간 대관하기로 합의, 짧은 기간내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사 측은 "불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루벤스가 조선인을 모델로 해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미 게이티미술관 소장) 등 2~3점을 추가로 섭외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루벤스 명화전에 광주 시립미술관이 한 역할이라고는 채종기 학예실장이 지난해 말 비엔나 미술대학을 방문해 전시작품을 확인한 게 전부다.

다름없다.

삼성 리움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들이 수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대규모 블록버스터전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함께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시너지 효과를 겨냥해 전시회를 유치한다고 밝힌 시립미술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경기대 교수)씨는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되짚는 비엔날레 기간에 중세 미술을 보여주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해 보이며, 고작 16점으로 전시를 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미술계 인사는 "루벤스는 제자와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 공장 형태로 2천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계를 살리고 공익을 위한 전시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작 의욕 살려 문화수도 이끌겠다"

오 덕 렬 신임 광주문인협회장

"광주지역 문인들에게 창작 의욕이 넘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8일 광주하동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광주시문인협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오덕렬(62·광주고등학교장)씨는 "광주문인협회가 문화수도 광주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와 오 회장은 주요사업으로 '올해의 작가상'을 신설하는 등 지역 작가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함께 광주문학의 발전을 위한 광주시문화관 건립을 꼽았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인화·단결을 유도해 문인협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후원회 조직해 광주문인협회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회장은 지난 1990년 수필 '까배미' '사랑방'으로 문단에 등단한 뒤 '고향의 오월' '귀향' 등 수필집을 출간하는 등 문학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이밖에 지난 2006년에는 광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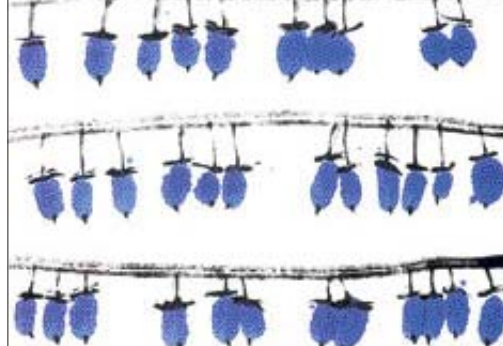


등학교에 4·19 시비(詩碑) '광주 4·19혁명, 그날' 건립, '광고문학관' 개관을 시작으로 '광고문학상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현재 광주교과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실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홍보관이 진행하는 목분공예 체험행사 모습.

'남도회화의 오늘' 초대전



박태후 작 '자연속으로'

북구청갤러리는 18일까지 신년기획으로 한국화, 문인화가 어우러진 '남도회화의 오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오경규, 박태후, 김광욱, 위성만, 박광식, 정찬홍 등 2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경규는 언덕 위에 선 노인이 붉은 꽃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관조',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 위에 참새를 올려 놓는 '참새' 연작을 그려 온 박태후는 여백의 미를 살린 '자연 속으로'를 선보인다.

한국 전통의 실경 산수화 맥을 잇고 있는 김광욱은 파릇하게 올라오는 보리밭을 화폭에 풀어 놓은 '고향의 봄', 위성만은 붉은 선으로 산봉우리의 웅장함과 아담한 산사를 함께 표현한 '산사'를 전시한다. 문의 062-510-1500.

2008 '미술단체 초대전' 공모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이 지역 미술 단체의 전시회를 지원하는 '2008 미술단체 초대전'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

미술단체 초대전 공모는 해마다 3~5개의 단체를 선정해 전시 공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술 단체엔 신청 가능하다. 단 5년 이내에 초대전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자

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8일이며 자료심사(21~25일)를 거쳐 30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의 062-222-3574.

'세계문화도시 통신원' 모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도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문화도시 통신원'을 모집한다.

운영국가는 프랑스,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등 26개국 39개 도시로 활동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약 6개월이다. 통신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및 정책과 해외 문화도시 개최 국제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영상으로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통신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원고당 15~20만 원)나 활동비를 지급하며 원서 마감은 오는 13일까지다. 문의 02-3704-3452. /김미은기자 mekim@

아이들 손잡고 '문화체험' 참여하세요

박물관·문화도시 홍보관

무료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수~욱 문화아이'(매일 1·3·5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는 매월 달라지는 박물관의 모습과 그와 관련된 전통문화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유아(6~7세), 초등학교 저학년용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소나무·대나무·매화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인 '세 친구의

겨울 나기, '예술가의 눈에 비친 봄의 향연' 등이다.

'십이지로 보는 새 희망'(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은 전통문양과 십이지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십이지와 가족들의 띠를 활용한 '우리 가족 상징 달력 만들기'로 진행된다.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박물관'(2·4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은 '동물에 담은 나의 희망' '윤두서의 손길처럼' 등을 주제로 우리 가족 초상화 그리기, 조개 장식 토기 만들기, 수묵으로 모란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박물관은 또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유령신부', '가

리쉬' 등 가족 영화를 상영한다. 문의 062-570-70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홍보관에서는 요일별(오후 2시~5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요일에는 알록달록 토폴함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보는 '목분공예 체험'이 열리며 수요일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또 목요일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로고를 넣은 '가방만들기'가, 금요일에는 '핸드폰 그리기 만들기'가 열린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재활용 예술 놀이'와 2012년 광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아시아 예술놀이'가 마련돼 있다. 문의 062-230-01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p> <p>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1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 최고급관 2관 무방비도시 (15세) 3관 더 재킷 (15세) 4관 P.S 아이러브유 (15세) 5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가면 (18세) 7관 가면 (18세)/골발대소동-더빙 (전제) 8관 9관 미스트 (15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위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엔터 시네마</p> <p>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황금나침반 (전제) 2관 색즉시공2 (18세)/내셔널트러져 (12세)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4관 아이러브유 (15세)/가면 (18세) 5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무방비도시 (15세)</p> <p>www.entercinema.co.kr</p> <p>* 넓고 편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역)</p> <p>1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나는 전설이다 (12세) 2관 알리쉬퍼맨 (전제)/30대 크로노비트 (18세) 3관 무방비 도시 (15세) 4관 무방비 도시 (15세) 5관 내셔널트러져 (12세)/더 재킷 (15세) 6관 골발대소동 (전제)/내셔널트러져 (12세) 7관 기다리다 미쳐 (15세)/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2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미스트 (15세) 9관 황금나침반 (전제)/P.S 아이러브유 (15세) 10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12세)</p> <p>* 오늘 최대 주차장 * 매입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 성인전원 별관 (11시~2시)~연</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골발대소동 (전제)/어거스터쉬 (전제)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P.S 아이러브유 (15세)/내셔널트러져 (12세) 5관 미스트 (15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8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자 사무시(오전9시~개방시)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무등극장</p> <p>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내셔널트러져 (12세)/30대 크로노비트 (18세) 2관 미스트 (15세)/나는 전설이다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5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15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골발대소동 (전제)/색즉시공2 (18세) 8관 아이러브유 (15세) 9관 황금나침반 (전제)/더 재킷 (15세)</p> <p>*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관람객 체안을 위한 전용물기 마련 * * 편의점의 기능 * * 주차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제일 시네마</p> <p>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3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4관 색즉시공2 (18세)/가면 (18세) 5관 내셔널트러져 (12세)/아이러브유 (15세) 6관 황금나침반 (전제)/나는 전설이다 (12세)</p> <p>*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